

<2012년 7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만사의 일은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해 봐야 한다. 행할 때 느낀다. 얻는다. 몸도 마음도 변화된다. 다른 차원에 가 있다.
2. 행한 날은 얻고 산 날이다.
3. 눈으로 보기, 귀로 듣기, 손으로 만지기, 몸으로 행하기다. 이같이 해야 신의 마음을 닮게 된다.
4. 신의 생각을 닮으니 신이 되어 살아가고, 사람의 생각을 닮으니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
5.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닮아도 행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신의 마음을 닮으면 신과 같이 행하게 된다.
6. 성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쓰기다. 그리기다. (곧 성자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기다.)
7.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생각이 돌아가고 마음이 감동 되어 몸으로 행하게 된다.
8. 마음과 생각이 성장되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필요한 것을->것만 분별하여 즉시 취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분별하여 즉시 버린다.
9. '인간'은 1단계에서 만족하며 갈등과 곤고함을 겪으며 살고 있고, '신'은 전지전능하시어 7단계에서 살고 있다. 신과 일체 되어라.
10. 성자의 마음과 그의 행하심을 닮고 행하기다.

11. 말과 행실의 미적 감각을 가져라.
12. 말의 추상화다. 행실의 추상화다.
13. 말도 행실도 심플하게다.
14. 아름답게, 화끈하게다.
15. 옛것은 전통이지만, 꼴통이다.
16. 미련한 자는 거죽 같은 욕을 움켜쥐고 만족하며 살아간다.
17. 욕의 사랑의 핵이 다르고, 영의 사랑의 핵이 다르다. 쓰여짐도, 행함도, 느낌도, 가치도 다르다.
18. 생긴 대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입은 입으로 써야 가치가 있다.
19. 인간은 창조주가 만드신 대로 써야 제대로 쓰임 받게 되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20. 손을 발로 쓰고 발을 손으로 쓰니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보람도 없는 것이다.
21. 각 지체는 그에 해당되는 대로 써야 지탱한다.
22. ‘핵’을 얻기 위해 수고하여라. 거죽은 보자기다.